

“건설업 통한 지역경제 발전 앞장”

오인철 건설협회 도회장 취임 1주년 사비 확보,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대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사진)이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오 회장은 지난 1년간 특유의 친화력과 업무 장악력으로 침체된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임 후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요 발주기관 및 정부를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했으며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 폐지, 공정거래위 하도급 직불제 확대 저지, 장기계속공사비 간접비 반영, 군 시설공사의 적정공

공사 분할발주, 불합리한 하도급법 제정 저지, 실적제한 입찰범위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또 “지역 회원사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해 도회 운영상황을 설명하고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협의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으며, 회원 친선 체육대회, 대표자 연수 등을 통한 협회의 단합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돕기,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에도 연간 1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환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이 도 경제를 이끄는 중추산업이 되는데 공헌하고 회원사 권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오인철 도 건설협회장 취임 1주년

오인철(사진) 대한건설협 도회장이 2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제21대 오인철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업무장악 능력으로 어려운 건설업계의 환경 속에서 맡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인철 회장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공사 참여 기회 확대 성과”

-취임 1주년이 됐다.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이를 위해 강원도를 포함해 도내 주요 발주기관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조정을



특히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하고 정책개선을 추진해 협회 집행부와 회원사간 유대를 강화했다. 지역협의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동시에 전체 회원사가 참여하는 회원 친선 체육대회,

종심제 지역업체 입찰 확대 노력

회원사 권익보호·사회공헌 주력

이끌어 냈으며 도내 회원사들의 입찰참가 범위 확대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도내 회원사들의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폐지 노력△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불제 확대 저지△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반영△군시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종심제 지역업체 참여 확대△불합리한 하도급법 제정 저지△대형공사 분할발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회원사 단합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지역 회원사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도회 운영상황을 설명했다.

대표자 연수 등 회원 친목행사를 통해 협회의 단합도 유도했다.

-주력사업이 있다면.

사회 공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웃돕기와 장학사업, 고성 왕곡 전통 민속마을 및 각종 단체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에 연간 1억여 원을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환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건설산업은 강원도 경제를 이끄는 중추 산업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일조하겠다. 또 안정적 협회 운영은 물론 불합리한 중복 및 과잉규제 개선과 함께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

안은복 rio@kado.net

【 2016.06.27(월) 건설경제 】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 회장 취임 1주년

가림 2016-06-27 09:01:16 푸트 + -

회원사 권익보호 주도...적극적 사회 공헌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사진)이 지난 2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21대 회장인 오 회장은 특유의 진화력으로 어려운 건설업계의 환경 속에서 회원사 권익보호와 건설업계 발전에 식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 회장은 지난 1년간 상무기관과 국회, 강원도 등 지자체, 국방부 시설팀, 조남청, 수요 공기업 등을 방문해 지역업체의 어려운 실정을 알리고 지원 과업조급 요청해 왔다. 취임 1년 동안 오 회장이 진행한 기관방문과 간담

회 횡수가 102회에 달한다.

이런 활동으로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조정이라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고, 회원사의 입찰참가 확대 등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지지와 수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노

회원사 사이의 화합과 사회공헌 사업에도 식욕적으로 나섰다.

지역협의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신체 회원사가 참여하는 회원 친선 체육대회와 대표자 면수 등 회원 친목행사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노회 운영 내용을 회원사에게 수시로 전달

이러한 이웃돕기와 상회사업, 고성 원곡 신동 미술마을 지원 등에 연간 1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에 식욕 나섰다.

오 회장은 "건설산업은 강원도 경제를 이끄는 중추 산업으로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앞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로 스안식 협회 영명 스기계실비·소방시설공사 분리발수 금지 스구분 별한 특허비용 배제 스식적심사제 등 입찰제도 개선 스불합리한 중독 및 과잉규제 개선 스식적 공사비 확보 스발수기관의 부조리 관행 근절 스낙찰을 상향 스회원사 고충서기 및 경영애로 해소 스회원 간의 화합 등을 꼽았다.

권해석 hacsok@

알립니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건설경제>가 '2016년 건설협력증진대상'을 공모합니다

<건설경제>가 마련한 건설협력증진대상은 서류 심사와 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치는 동시에 우수한 동반성장 정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진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 상은 건설산업 주체들의 동반성장 역량과 의지를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한 행사입니다.

수상 기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최대 3점 및 시공능력평가액의 6%를 가산점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때 벌점 '2점'의 감경 조치도 더해집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길라잡이가 될 건설협력증진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2016 건설협력증진대상
- 주최 : 건설경제신문, 건설의주협의회
- 후원(예정)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크레디블(credible)
- 응모 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공기업 및 종합, 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업체, 건설산업분야 협회·단체
- 응모 방식 : 자체 지원 또는 협력상대(일반·전문건설업체) 간 추천 중 택일
- 시상 부문 :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응모 신청 및 심사
 - 1차 신청서 접수 : 2016. 6. 27~7. 21(오후 6시 마감)
 - 2차 심사서류 접수 : 2016. 8. 1~9. 8(오후 6시 마감)
 - 3차 발표 심사 : 2016. 10월 중(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
 - 시상식 : 2016. 11월 말
- 공모 안내서와 응모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건설경제> 홈페이지(www.cnews.co.kr) 배너 참고
- 문의 : (02)3485-8446